

農藥·가스 해독제 G-3

事業家와 發明家가 만나 16年만에 成功

調査資料部

發明界의 귀감

좋은 發明을 해 놓고도 이를 企業化하는데는 실패하는 경우가 우리 주변에는 종종 있다.

發明家의 材力이나 사업수완 商品化솜씨 등에 한계가 있을 때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農藥 및 연탄가스해독제라는 發明品을 기업화하는데 成功한 (株)韓一의 경우는 그 칼은 어려움을 훌륭히 극복한 좋은 예이다.

發明을 이해하고 16년간 發明品 企業化에 모든 정력을 쏟아넣은 朴文鍾씨(48)(株)韓一代表와 발명에 21년이라는 긴 세월을 바쳐온 發明家 金容殷씨(株)韓一 공장책임자>의 경우는 그래서 우리 發明界에 좋은 귀감이 되고 있다.

발명에 손댄지 21년만에 商品化된 「G-3」이란製品은 生藥을 주원료로한 천연식품성 강력 속효성 해독및 탈취제이다.

농약중독자의 치료와 예방에 놀랄만한 効能을 지닌 한편 각종 독가스와 연탄가스 탈취에도 효과가 아주 좋은 것으로 立證됐다.

「G-3」이란 제품이 지난해부터 농협중앙회와 과수조합, 양잠·양봉조합등을 통해 전국 농촌에 보급되기 시작하자 벌써 많은 일화를 남겼다.

農藥을 마시고 음독을 기도한 노인이 「G-3」 덕분으로 살아나 고맙다는 인사편지를 보내왔다.

各界서 藥効 認定

누에나 양봉업자가 농약공해로 사경에 접어든 누에나 벌을 「G-3」덕분으로 살려내서 고맙다는 편지 등이 날아들기도 했다.

양잠조합報나 양봉협회報에 이러한 일화가 소개되고 농촌지도소 영농교본의 겨울영농교본에서도 이製품의 용도를 紹介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朴사장의 說明으로는 이藥劑의 効能이 널리 商品으로 소개되고 인식되기 시작한 것은 82년부터였고 지난해 본격화돼 비로소 商品화에 자신을 얻게된 것.

朴사장이 發明家 金씨를 만나 서로 이 發明의 企業化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68년이었으니 실로 16년만의 成功이었다.

그러나 실제 金씨가 처음 發明에 손댄 것은 21年前인 63년.

당시 연탄가스중독사고가 크게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이를 해결할 發明藥劑를 만들자는 생각에서 시작했다.

金씨는 한의사인 선친에게서 蒺藜 면미환자를 치료하는 한방비법을 보고들은 바 있는데다 자신도 동양한의대(경희 한의대 전신) 4년 중퇴라는 경험이 있는데라 그려한 경험을 살려 우리나라에 많은 약초등을 이용해 해독제발명에 착수하게 됐다.



전국의 약초 2천여종을 구해다 研究를 거듭했고 동물실험과 인체실험 등을 계속했다.

퇴직금까지 研究費로

68년에 이르러 發明家 金씨는 어느정도 効能에 자신을 가지게 됐지만 공증을 받고 商品化하는데 한계가 닥쳐왔다.

이때 朴사장은 만나게 된 것. 朴사장은 좌절에 빠진 金씨에게 용기를 주면서 서울시청을 마지막으로 14년 공무원 생활을 끝내면서 받은 퇴직금을 털어 자금을 댔고 연구실험에 동참했다.

연탄가스해독에 상당한 效果가 立證됐으나 당시 무수한 해독제나 해독방법등이 쏟아져 나올 때라 認定을 받기 어려웠다.

78년에 이르기까지 10여년동안 많은 돈과 노력이 들어갔으나 손에 들어오는 대가는 별로 없었다.

朴사장은 78년에 이르러 이 藥劑의 사용대상을

농촌으로 바꾸자는 결심을 하고 「韓一」이라는 회사도 79년에 차렸다.

농약공해로 시달리는 많은 농민과 양봉 뉴에 업자에게 좋은 發明品이 될것으로 판단했다.

14種의 生藥이 原料

이때부터 국립보건원 KAIST 각대학 한의사등을 만나 藥劑의 公認試驗을 의뢰했다.

미꾸라지 쥐 토키등을 통한 농약해독시험에서 92%라는 높은 치유율이 나타나자 점차 이 藥劑가 公認되기 시작했다.

가톨릭의대등의 공인 시험결과가 신문 지상에 보도되고 지난해 發明展에서 상공부장관상을 받자 朴·金 양씨도 더욱 힘을 얻기 시작했다.

농약을 하기 전에 미리 먹거나 바로면 중독이 예방되고 중독됐을때도 먹으면 소생확률이 놀랍다는 것.

순한방 원제로 14종의 약초를 비방으로 처리한 이 약제가 널리 보급되자 이제야 비로소 국민에게 자신들의 發明品이 공헌하게 됐다면서 가슴을 편다.

지난해를 고비로 올해부터 生產施設 늘려 수요에 충분히 대응하겠다는 朴사장은 농약탈취제뿐만 아니라 냉장고 탈취제와 꿀벌보호제도 商品화 했고 앞으로 산업용탈취제와 과일야채세척용등으로 상품을 다양화시켜 자신들의 특허품(81년9월 등록)을 널리 보급시키겠다는 의욕에 차있다.

● 대표전화 변경안내 ●

韓國經濟新聞은 社勢伸張에 따라 독자 및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局線전화를大幅增設함과 동시에 대표전화번호를 아래와 같이 변경했다.

1. 변경전화번호

313-5511

2. 변경일시

1984년 7월 16일(月) 08시